" 소유권·사용권·감사권·회수권을 주님께 돌려 드려야 "

■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신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현대문화가 갖고 있는 우상들은 고대인들의 우상과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각각 자기들의 우상을 세우고 있다. 건축물, 스포츠, 비즈니스 세계에서 부와 특권, 상관과 수직관계를 상승시키기 위해 소위 성공의 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탐욕의 문화로 세상을 본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이라 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라 마음에서 우리는 세상에 실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 낸다. 그것이 내 마음 한복판에서 나의 안전과 의미와 충족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돈은 물질 이상이다. 인간의 힘이 될 수도 있고 문화인으로 살게도 하는 돈이 십계명이 금한 다른 신이 되었다. 섹스나 명예를 다른 신으로 삼는 이도 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무엇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줄 수 있다고 믿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때로는 가족이나 성공, 체면, 경력, 지위, 로맨틱 관계, 재능, 환경, 미, 두뇌, 도덕성 등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sex Gods, work Gods, war Gods, money Gods, nation Gods들이 개인과 국민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섬김을 받을 수도 있다. 육체적 미를 신성화한다면 그것은 미가 아니라 우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의미 그리고 성취를 현대인들은 이런 개별적 우상들로부터 찾고 있다. 문화, 지식, 이데올로기, 전문영역에서 타협할 수 없는 절대가치 즉 비즈니스에서 이윤창출 같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우상에게 복종한다. 인간들은 참 남편 된 하나님을 제쳐놓고 영적 간음자가 되어 자신의 성공과 번영, 평화와 안전을 우상에게 구하고 있다. 심지어 완전주의, 알코올중독, 고질적인 우유부단함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나의 우상이다. 궁극적 안전망을 돈으로 삼고 섬긴 이에게 사업실패와 투자금이 날아갔을 때 자살 소동을 벌인다. 미 연방주택자금 재무총책이 2008년 그의 지하실에서 목매어 죽었다. 미국 부동산업계의 선두주자인 Sheldon Good의 사장이 자신의 머리에 자기가 총을 쏘아 죽었다. 한국 현대 그룹의 OOO 회장도 투신자살을 했다. 슬픔은 위로 받을 길이 있지만 절망은 궁극적인 것을 상실할 때 오는 것이므로 위로가 없다. 돈 우상에 대한 절망은 영혼을 파괴시키고 이상한 우울증에 빠져 마침내 죽음으로 끝난다.

우리들 문화가 하나님을 섹스와 로맨스로 대치했다. 하나님을 돈으로 오늘의 서구에서는 대치한 지 오래 되었다. 탐욕의 문화는 경제적 부패를 가져왔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탐욕과 허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한 돈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탐욕은 돈을 사랑할 뿐 아니라 돈에 대한 극단적 근심을 갖게 한다. 은행의 계좌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되고 있다면 그는 탐욕에 붙잡힌 자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인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돈에 의해 평가되고 있지 않은가. 우상숭배는 돈을 사랑하고 신뢰할 뿐 아니라 돈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키가 작은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려 했을 때 돈 문제가 걸렸다. 우주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그가 만나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 후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의 물질에 대한 시각이 변하였다. 그는 그토록 사랑하고 높이 보았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했다. 변화된 삶은 구원받은 이에게 따르는 열매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서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선을 위한 도구로 특히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놓으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섹스 우상보다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이기심이나 자기 우상이 더 무섭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능력으로만 바꿀 수가 있다. 돈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되지 않고 내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의지하지 말고 나를 위해 가난해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 사용권, 감사권, 회수권을 주님께 돌려드린 충성된 청지기로 살자.

—한국장로신문 [1326호] 2012년 6월 30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Pastor David John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5:17-47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Claims of Jesus and the Witnesses to Christ"	Pastor
* Hymn	96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윤누가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야곱주한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컷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아 망, 탕, 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싼다 사우 키숨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제27권 제32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17년 8월6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 상한 갈대 "

■ 사 42:3-4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영국의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 에서 세계의 유수한 문화와 문명은 고난과 역경의 소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사상가인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했습니다.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를 빗대어 그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한 것입니다. 장편소설 '대지' 로 193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는 1960년 한국에 처음 방문한 후 우리나라를 주제로 쓴 소설 '살아있는 갈대' 첫 머리에서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극찬하면서 한국인을 '사랑하는 갈대'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종교적인 입장으로, 파스칼은 철학적인 의미로, 펄 벅 여사는 사회적인 요소를 담아 각각 갈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 갈대와 같은 인간
갈대는 히브리어로 '쿠어나' 라고 하는데 이는 창을 의미합니다. 갈대는 건축 재료로 벽체를 만들거나, 엮어서 지붕을 만들기도 하고 바구니나 화살과 창을 만들기도 하는 등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물입니다. 그러나 그 개체 자체가 매우 연약하여 바람과 같은 외부 힘에 의해 쉽게 부러지고, 부러진 줄기는 쉽게 흩어지지만 바람이 잠잠해지면 자신을 곧바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갈대는 의지와 인내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오서 요단강변에서 세례요한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갈대는 유대민족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지배계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육신만 악한 것 아니고 정신력까지도 매우 약합니다. 인간들의 영성은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 무너졌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 어거스틴과 요한 칼빈은 인간들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전혀 무익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2. 갈대와 같은 교회
실로 유대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사방에서 몰아치는 이방인들의 침략과 앗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성장과 번영의 희생물로 전쟁과 학살, 포로, 기근 등이 점철된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제국에 정복당함으로 속국으로 허덕이는 상한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잡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대는 갈대일 뿐 결코 잡초가 아닙니다. 갈대는 성장합니다. 가련하고 악하게 보이지만 무엇인가 해 낼 것 만 같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한 갈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사는 수난과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들의 교회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수난이 기록된 내용에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몸에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리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홍포를 입으심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머리에 쓴 가시 면류관은 금 면류관을, 그리고 오른손에 들린 갈대는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2:20). 상한 갈대는 전적인 무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성도를 절대로 꺾지 아니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건함과 겸손함을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맺는 말
지금은 미약할 지라도 갈대가 꺾이지 않고 흔들림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꺾이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면 하늘로부터 영광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니 이 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광훈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Ⅱ	오전11시20분	서준권 목사	오치열 장로
Ⅲ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송인권 장로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34: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14(시 24)···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66(20)···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 2:1-9···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설 교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 하나님의 생명원리 ··· 이규민 목사
* 찬 송Hymn ·····438(49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서준권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29:1-2 ····· 인 도 자
찬 송 ····· 67(31) ····· 다 함 께
기 도 ····· 장윤기 집사
성 경 ····· 계 5:8-14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어린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 설 교 자
* 찬 송 ····· 27(27)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 박춘자2 권사
성 경 ····· 벧전 3:13-22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안·박수강
설 교 ····· 서준권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지난주 성구	이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사 42:3-4)		
수요Ⅰ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비젼2020 8월 기도회 / 6일(주) 오후3시30분 802호
2. 정기당회 / 9일(수) 수요예배 후 가이오 실

◆ 알 림
1.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3. 603호 예배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 분-5시
4.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 주일 오후 1시-2시
5.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6.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7.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9. 의료 상담 / 정철응(외과), 정현구(치과) 주일 오전 10시4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1.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8월 세례식이 8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대상자로써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은 문답 준비를 위해 8월 6일(주) 오후 1시까지 609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답 시간은 오후2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 준비반 (602호)로 문의바랍니다. (010-7743-3223)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2. 이규민 목사 소개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
장신대 대외협력처장
한국기독교공동학회 사무총장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Princeton 신학대학원(Th.M.)
미국 Princeton 신학대학원(Ph.D.)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84명	260명	253명	1,397명	155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7/30)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7월 30일	헌금	45,472,000	
"	특별예배비		1,000,000
"	찬양운영비		6,700,000
"	교회학교운영비		1,000,000
"	출 판 비		270,000
"	도서인쇄비		96,000
"	사무용품비		224,350
"	소모품비		484,100
	통 신 비		41,620
"	차량유지비		1,103,390
	복리후생비		43,000
"	환경유지비		319,000
	수선유지비		26,000
"	식당운영비		1,023,500
"	합 계	45,472,000	12,330,960